

다양한 사회 집단의 입장에서의 암묵적 연합의 측정

이 향 수 김 현 정 박 영 옥 박 상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에 대한 선호의 암묵적 연합("암묵적 메타 태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을 참가자로 하여 특정 외집단(흑인 또는 백인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내집단과 외집단에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선호에 대한 암묵적인 연합들을 측정하고 이 측정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암묵적 연합의 측정을 위해 연구 1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를 변형한 과제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흑인과 백인 집단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전형적인 흑인 또는 전형적인 백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호를 측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단축형 암묵적 연합 검사를 변형한 과제를 사용하여 본인, 흑인, 백인 입장에서의 세 가지 연합을 각 참가자로부터 모두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각각에 대응하는 외현적 신념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흑인 또는 백인의 입장에서 측정된 암묵적 연합은 해당 집단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편향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본인의 입장에서 측정된 암묵적 연합은 흑인/백인 입장에서 측정된 것들 사이에 위치하였다. 외현적 태도와의 관계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본인이 속하지 않은 사회적 범주의 입장에서도 타 집단에 대한 선호의 암묵적 연합이 표상되어 측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 암묵적 연합, 자동적 과정, 집단간 편향, 편견

[†] 교신저자 : 박상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2-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 sangheepark@chungbuk.ac.kr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자. 당신은 A라는 나라 출신의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A국 사람들은 또 다른 외국인 B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당신의 A국 친구들은 B국인들을 비하하는 농담을 하면서 웃고 있다. 그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신은 친구들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농담을 듣고 재미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 농담에 웃을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범주들에 대한 암묵적인 편향이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심적으로 표상되고 측정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간 선호에 대한 지식이 자동화되어 암묵적인 측정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암묵적 인지, 즉 지식, 지각, 기억 등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Reingold & Ray, 2006)은 기억(예: Schacter, 1987; Graf & Masson, 1993), 사회 인지(예: Wegner & Vallacher, 1977; Bargh & Chartrand, 1999; Payne & Gawronski, 2010); 인상(예: Nock et al., 2010; Valiente et al., 2011) 등 심리학의 전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암묵적 연합(implicit association) 또는 자동적 연합(automatic association)은 인지심리학에서의 이중 과정 모형들(dual process models)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서, 하나의 심적 표상(예: 꽃)이 다른 심적 표상(예: 기쁨)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한 표상이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도 특별한 주의, 노력이나 의식 없이도 활성화되는 것을 가리킨다(Schneider & Shiffrin, 1977; Smith

& DeCoster, 2000). 암묵적 연합 중에서 특히 사회심리학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암묵적 태도(implicit attitude) 또는 암묵적 편견(implicit prejudice)이 사회 인지, 구체적으로는 집단간 편향의 맥락에서 중심적인 주제로서 다루어져 왔다(나은영, 권준모, 2002; 권준모, 2001; Devine, 1989; Fazio, Sanbonmatsu, Powell, & Kardes, 1986 등). Greenwald와 Banaji(1995)는 암묵적 태도를 암묵적 사회 인지(implicit social cognition)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내성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확인된 과거 경험의 흔적들로서, 사회적 대상들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 생각, 행동을 매개하는 것들”로 정의하였다. 사회 인지에서 암묵적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집단(대부분 인종)간 편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집단간 편향이 암묵적 태도에 관한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주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집단간 편향을 나타내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Schuman, Steeh, Bobo, & Krysan, 1985), 그에 따라 심리학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편향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게 되어 그들이 지니고 있는 편향을 자기 보고와 같은 종래의 방법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홍영오, 이훈구, 2001; Jones & Sigall, 1971; Gaertner & Dovidio, 1986). 이렇게 암묵적 과정에 대해 환기된 관심은 어떻게 암묵적인 편향을 측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개발되어 암묵적인 집단간 편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암묵적 연합의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최근의 개관 논문으로 Nosek, Hawkins, & Frazier, 2011을 참조), 그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Greenwald와 동료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이다. IAT는 주로 암묵적 태도, 즉 대상에 대한 자동적인 선호 측정에 사용하지만 태도뿐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연합(예를 들어 자살과 자기 사이의 연합; Nock et al., 2010)을 측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경우의 통상적인 IAT 절차는 다음과 같다(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Lane, Banaji, Nosek, & Greenwald, 2007 참조). 참가자는 화면에 제시되는 자극들(단어, 그림 등)을 분류하는 과제를 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는다. 화면 가운데에 자극들이 하나씩 차례로 제시되면, 참가자들은 왼쪽과 오른쪽 위에 제시되는 범주명을 보고 각 자극들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재빨리 판단한 뒤에 키보드의 지정된 키를 누름으로써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분류한다. 참가자가 주어진 자극을 얼마나 빨리 범주화하는지를 알기 위해 반응 시간이 측정된다. IAT에서는 두 개념의 쌍 사이의 연합을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흑/백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때에는 흑/백의 인종 범주와 긍정/부정 단어들 사이의 연합을 관찰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암묵적 연합의 대상이 되는 범주(예: 흑인, 백인)는 ‘표적 범주(target categories)’로, 표적 범주에 연합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특성들(예: 긍정 또는 부정의 개념들)을 ‘특성 범주(attribute categories)’로 지칭한다. 암묵적 연합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블록에서는 표적 범주들

과 특성 범주들 중 하나씩을 번갈아 왼쪽/오른쪽으로 조합하여 참가자가 어느 조합에서 반응 시간이 더 빠르거나 느린지를 관찰한다. 예를 들어 흑인 또는 긍정 단어를 왼쪽으로, 백인 또는 부정 단어를 오른쪽으로 분류해야 하는 블록에 비해 백인 또는 긍정 단어를 왼쪽으로, 흑인 또는 부정 단어를 오른쪽으로 분류해야 하는 블록에서 평균적인 반응 시간이 더 빠르다면 그 참가자는 흑인에 대해(백인에 비해) 암묵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대상 범주에 대한 태도의 절대적인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범주에 상대되는 범주에 대비했을 때의 상대적인 점수를 측정한다는 것이 IAT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이다.

IAT 등으로 측정하는 암묵적 태도는 직접적인 질문에 의한 외현적인 태도와는 다른 인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Ranganath와 Nosek(2008)에 따르면 집단의 한 구성원에 대해 형성된 암묵적 태도는 외현적 태도에 비해 그 집단 전체에 더 빠르게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두 종류의 태도는 서로 상관은 있지만 그 상관이 높지는 않아서,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별개의 인지적 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Hofmann, Gawronski, Gschwendner, Le, & Schmitt, 2005; Nosek, 2005; Nosek et al., 2007). 암묵적 태도가 평가적 조건형성(evaluative conditioning), 즉 대상과 긍정/부정 개념들의 조합에의 반복된 노출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지만 외현적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던 결과(Olson & Fazio,

2006) 역시 두 종류의 태도가 서로 다른 심리적 기제를 통해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암묵적 태도를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이해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으나(Karpinski & Hilton, 2001) 실제로 투표, 정신 건강, 고용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판단이나 행동을 예측하는 이상(Greenwald, Pochlman, Uhlmann, & Banaji, 2009; Greenwald, 2012)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를 떠나서 이것이 갖는 이론적, 현실적 함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T와 같은 암묵적 태도 측정 방법이 직접적인 질문 방법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은 참가자 본인이 대상을 선호하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흑인’ 범주와 ‘나쁜’ 범주 사이에 강한 연합이 관찰되었을 때 참가자 본인이 그 연합의 ‘소유자’인지(즉 그 연합이 참가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실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가자와는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참가자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적인(extrapersonal) 개념들인지 명확하지 않다. Olson과 Fazio(2004)는 이런 측면에서 IAT를 비판하면서 IAT로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태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편견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중 전자는 그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후자는 참가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자극들의 연합(예: 흑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미디어)에 노출된 것의 흔적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온전하게 암묵적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좋은’/‘나쁜’과 같은 모호한 범주가 아니라 그 개인의 실제 선호 여부를 나타내는 범주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주장에 따라 Olson과 Fazio(2004)는 IAT를 개량한 개인화된(personalized) IAT라는 과제를 개발하였는데, 이 과제의 절차는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IAT와 거의 같으나 긍정/부정 단어들을 분류할 때 ‘좋은’/‘나쁜’의 범주명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I like)’, ‘내가 싫어하는(I don’t like)’의 범주명들이 제시된다. Olson과 Fazio(2004)의 개인화된 IAT로 측정한 암묵적 태도는 표준적인 IAT에 비해 외현적 태도와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표준적인 IAT가 개인의 태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Yoshida, Peach, Zanna, & Spencer(2012)는 Olson과 Fazio(2004)가 주장한 암묵적 연합의 두 구성 요소 중 그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한, 사회적인 편견에 노출된 결과 습득된 연합에 관심을 가졌다. Yoshida 등은 이렇게 개인 스스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반복된 노출에 의해 자동화된 선호의 연합을 암묵적 규범 평가(implicit normative evaluation)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Olson과 Fazio의 방법을 차용하되 ‘내가 좋아하는’/‘내가 싫어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most people like)’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most people don’t like)’의 범주명을 사용하여 암묵적 규범 평가를 측정하였다.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Yoshida 등은 암묵적 규범 평가가 암묵적 태도와 독립적으로 표준 IAT 점수와 상관을 가지고, 외현적인 수준에서의 규범 평가와도 독립되며, 암묵적인 차별 행동(Correll, Park, Judd, & Wittenbrink,

2002) 역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Yoshida 등은 암묵적 규범 평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판단과 행동을 적절히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정리하면 Olson과 Fazio(2004), 그리고 Yoshida 등(2012)의 연구는 IAT에 의해서 측정되는 암묵적인 연합이 암묵적 태도와 암묵적 규범 평가라는 두 개의 요소들의 혼합물임을 밝혔다. 이 두 개의 새로운 개념들이 Greenwald 등(1998)의 기존의 암묵적 태도의 개념과 다른 점은 대상에 대한 선호의 주체가 더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즉 Greenwald 등의 IAT에서는 대상 범주와 긍정/부정의 의미들 사이의 연합을 측정함에 있어서 ‘누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남아있었던 반면, Olson과 Fazio, 그리고 Yoshida와 동료들의 방법에서는 평가의 주체를 범주명에 명시함으로써 암묵적 연합이 갖는 의미가 더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를 통해 암묵적 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Yoshida 등(2012)의 연구에서도 암묵적 규범 평가의 주체로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태도의 암묵적인 연합이 보다 구체적인 타인들에 대해서도 표상되어 있을까? 우리들은 구체적인 타인(개인 또는 사회적 집단)이 가지고 있을 선호에 대해서도 심적 표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묵적인 연합은 결국 두 심적 표상들(생각, 정서, 평가, 동기, 행동 등의 심리적 개념들과 개인, 집단,

사물 등 사회적 대상들을 포함하는)의 반복된 병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Smith & DeCoster, 2000), 구체적인 타인들이 대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관찰하였다면 그 사람들의 선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자동적인 연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호한 집단들의 선호에 대하여 암묵적 연합(즉 암묵적 규범 평가)이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관찰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태도에 대한 연합도 생겨날 수 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론적 근거는 암묵적 규범 평가와 같은 타인의 선호도에 대한 연합이 갖는 적응적인 기능에 있다. 암묵적 규범 평가가 개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맥락에서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Yoshida et al., 2012) 그 암묵적 규범 평가는 모든 사회적 맥락에 걸쳐서 그 주체가 같다고 가정하기보다는 각 맥락에서 가장 우세한(dominant) 또는 현저한(salient) 사회적 집단이 가지고 있을 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논문의 앞머리에서처럼 A국 출신의 친구들이 B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맥락에서는 A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집단간 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적응적일 것이고, B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반대로 B국 사람들의 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Lun, Sinclair, Whitchurch, & Glenn, 2007; Cesario, Plaks, & Higgins, 2006).

이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태도도 암묵적인 연합의 형태

로 표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을 직접 측정하여 그 존재를 확인한 연구는 우리가 알기로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Olson과 Fazio(2004), Yoshida 등(2012)의 예를 따라, 암묵적 태도 측정의 방법을 응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암묵적 연합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태도가 자동화된 것을 암묵적 메타 태도(implicit meta-attitude)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측정하였다. Yoshida 등(2012)이 암묵적 규범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본 연구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이유는, 그들의 개념과는 달리 암묵적 메타 태도는 우세하거나 다수인 집단, 즉 사회의 규범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집단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이 가지고 있을) 태도에 대한 지식 또는 생각이 자동화된 연합이라는 의미로, 메타 인지(metacognition), 메타 기억(metamemory) 등의 용례를 따르는 한편 암묵적인 과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암묵적 메타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암묵적 메타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선호의 자동적 연합이 본인 자신의 태도나 사회적인 통념에 한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암묵적 메타 태도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암묵적인 태도 개념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암묵적 메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lson과 Fazio(2004), Yoshida 등(2012)이

개발한 방법을 차용하여 ‘(구체적인 집단의 구성원들이) 좋아하는/싫어하는’의 범주명들이 제시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방법의 측면에서는 연구 1에서는 표준적인 IAT(Greenwald 등, 1998)를 사용하였고 연구 2에서는 IAT 자료 수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로 최근에 개발된 단축형 암묵적 연합 검사(Brief IAT; Sriram & Greenwald, 2009)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IAT와 약간 다른 Brief IAT를 사용함으로써 현상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암묵적 메타 태도와 본인의 암묵적 태도, 그리고 이것들에 각각 대응되는 외현적인 측정들간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암묵적 태도 측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한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여러 집단의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외현적인 수준에서 지각된 집단간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암묵적 연합들끼리의 상관, 그리고 외현적 측정과의 상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집단들은 암묵적 태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흑인과 백인 집단으로 정하여 참가자들 자신의 입장, 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입장에서 흑/백인 집단에 대한 인종적 태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연구 1, 2 모두에서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인의 입장에서 인종적 태도를 측정할 경우 참가자들은 (백인에 비해) 흑인 집단에 더 부정적인 선호를 나타낼 것이다. 흑인의 입장에서 측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흑인 범주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며, 본인의 입장에서 이 둘의 사이에 위치하는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연

합이 그 방향이나 크기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가 예상되는 방향, 즉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와 일치한다면 암묵적 메타 태도가 존재하며 측정 가능하다는 우리의 가설이 뒷받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로 본인의 선호에 대해 판단할 때보다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의 선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못한 과제이므로 흑인/백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과제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비해 반응 시간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암묵적 연합 간, 그리고 암묵적 연합과 외현적 측정 간의 상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상관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 복잡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나은영, 권준모, 2002; Nosek, Smyth, Hansen et al., 2007) 사전에 예측을 하지 않았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무선적으로 나누어서 자신, 흑인, 백인의 입장에서 흑/백인들에 대한 암묵적 연합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각 주체의 입장에서의 암묵적 연합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Fazio(2004)와 Yoshida 등(2012)이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조건마다 화면에 제시되는 범주명을 다르게 부여하였다. 흑인 조건에서는 흑인 범주에, 백인 조건에서는 백인 범주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암묵적 연합이 나타나고, 본인 조건에서의 암묵적 연합은 그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참가자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169명(남: 87)의 학생들이 수업 과제의 일부로서 심리학과 실험실에서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0세였다.

설계 일반적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를 사용하여 표적 범주에 대한 암묵적 태도(즉 긍정/부정의 개념과의 연합)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특성 범주에 “좋음”/“나쁨”의 범주명을 부여하며 각각의 범주에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표적 범주와 긍정 또는 부정의 개념들과의 연합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주체(나, 흑인들, 또는 백인들)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개념들과의 연합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특성 범주들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일반적인 암묵적 태도 측정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것들을 사용하되 그 범주명만을 ‘내가/흑인이/백인이) 좋아하는’/‘...싫어하는’으로 대체하여 제시하였다 (Olson & Fazio, 2004; Yoshida et al., 2012 참조).

기구 및 절차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참가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연구는 Inquisit 3.0.6.0으로 제작되었으며 컴퓨터로 진행되었고 모든 안내는 컴퓨터 화면의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 과제가 단어들이나 사진들을 화면에 제시되는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과제이고, 가능한 틀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읽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과제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이

라고 상상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할 경우 참가자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과제를 어느 입장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 ‘흑인’, 또는 ‘백인’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완전 무선 할당이었기 때문에 각 조건에 각각 53, 63, 53명씩 불균형 할당되었다). ‘나’ 조건에서는 참가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흑인’, ‘백인’ 조건에서는 각각 미국의 전형적인 ‘흑인’, ‘백인’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다.

과제는 대체로 암묵적 연합 검사(Lane et al., 2007)의 절차를 따랐으나, 앞서 밝힌 대로 특성 범주들의 범주명을 ‘좋음’/‘나쁨’ 대신에 ‘내가/흑인이/백인이(즉 해당 조건에서의 주체가) 좋아하는’/‘...싫어하는’을 사용한다는 차이

점이 있었다(Olson & Fazio, 2004; Yoshida et al., 2012 참조). 과제에 사용된 특성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IAT 원저자들의 Project Implicit 웹사이트(<https://implicit.harvard.edu/implicit/>)의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 사용된 기쁨, 사랑, 평화, 훌륭함, 즐거움, 영광, 웃음, 행복, 고뇌, 무서움, 끔찍함, 추잡함, 사악함, 지독함, 실패, 상처의 16개 단어였다. 과제는 총 일곱 블록으로 나뉘었고 각 블록은 20회 또는 40회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각 블록이 시작되기 전 첫 화면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제시되는 범주명들이 각각 무엇인지가 안내되었다. 표 1에 각 블록의 기능, 왼쪽 키와 오른쪽 키에 대응되는 범주들, 시행 수, 참가자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졌는지 여부가 정리되어 있다. 사용된 화면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각 시행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범주명들은 구별을

표 1. 연구 1에서 사용된 IAT의 절차

블록	기능	왼쪽('E') 키	오른쪽('I') 키	시행 수	피드백 유무
1/5	표적 범주의 학습	백인 얼굴	흑인 얼굴	20	O
2	특성 범주의 학습	'~이/가 좋아하는'	'~이/가 싫어하는'	20	X
3/6	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백인 얼굴 또는 '~이/가 좋아하는'	흑인 얼굴 또는 '~이/가 싫어하는'	20	X
4/7	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백인 얼굴 또는 '~이/가 좋아하는'	흑인 얼굴 또는 '~이/가 싫어하는'	40	X
5/1	표적 범주의 학습	흑인 얼굴	백인 얼굴	20	O
6/3	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흑인 얼굴 또는 '~이/가 좋아하는'	백인 얼굴 또는 '~이/가 싫어하는'	20	X
7/4	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흑인 얼굴 또는 '~이/가 좋아하는'	백인 얼굴 또는 '~이/가 싫어하는'	40	X

주. ‘블록’ 열은 제시 순서를 나타냄. 블록의 제시 순서는 역균형화되었음. ‘~이/가’는 조건에 따라 ‘내가’, ‘흑인이’, ‘백인이’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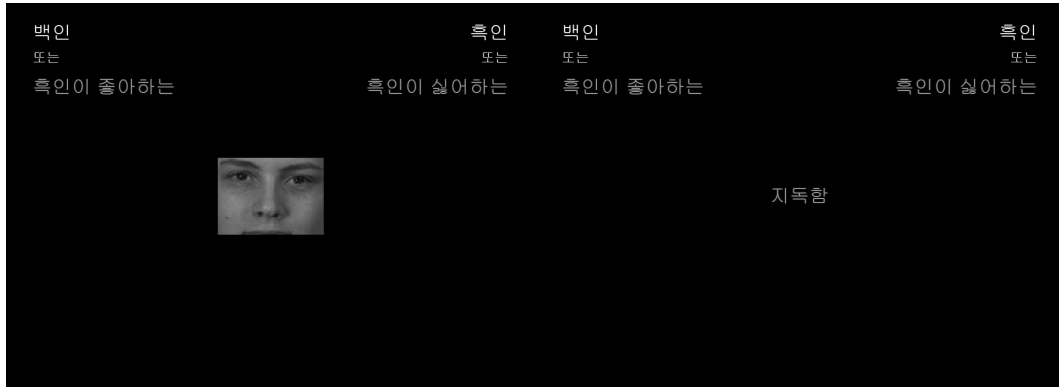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1에서 사용된 IAT 화면의 예시(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블록).

위해 표적 범주는 흰색 글씨로, 특성 범주는 노란색 글씨로 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화면에 나타난 단어가 속한 범주에 따라서 키보드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블록에서 참가자들은 표적 자극들인 이마와 턱 부분이 가려지고 얼굴만 확대된 젊은 흑인과 백인 얼굴(각 인종, 성별에 따라 세 명씩; <https://implicit.harvard.edu/implicit/>의 자극들을 사용)을 범주화하면서 각 범주를 왼쪽/오른쪽 방향과 연합시키는 것을 연습하였다. 참가자는 손가락을 키보드의 'E'키와 'I'키에 올려 놓은 후 컴퓨터 화면의 맨 위 왼쪽과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각 표적 범주('흑인', '백인')에 해당하는 사진이 화면의 중앙에 나올 경우 키보드의 해당 키를 눌러 적절한 범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화면의 왼쪽에 '흑인', 오른쪽에 '백인' 범주가 있었다면 백인 사진이 나왔을 경우 'I'키(오른쪽)를, 흑인 사진이 나왔을 경우 'E'키(왼쪽)를 누르도록 하였다. 만약 참가자가 틀리게 분류할 경우 화면 가운데에 빨간색 X로 틀렸다는 피드백이 주어졌고, 참가자가 맞는 키를 다시 눌러야

비로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두 범주의 위치(왼쪽 또는 오른쪽)는 참가자들마다 무작위로 결정되었고 이 블록은 20회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블록 역시 연습 블록으로서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특성 범주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분류하여 각 범주를 왼쪽/오른쪽에 대응시키는 연습을 하였다. 화면 위 범주는 참가자가 할당된 조건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내가 싫어하는', '백인이 좋아하는'/'백인이 싫어하는', 또는 '흑인이 좋아하는'/'흑인이 싫어하는'이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범주에 속하는 단어가 화면의 중앙에 나오면 키보드의 키를 눌러 범주를 분류했다. 예를 들어 화면의 왼쪽에 '백인이 좋아하는', 오른쪽에 '백인이 싫어하는' 범주가 제시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참가자가 이를 백인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E'키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I'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Olson과 Fazio(2004)에 의하면 이 블록에서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대상 자극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참가자의 반응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피드백을 준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블록에서는 블록 1과 다르게 빨간색 X는 표시되지 않았고 범주화 방향에 관계없이 바로 다음 시행으로 진행되었다. 특성 범주들이 포함된 이후의 블록들에서도 빨간색 X는 표시되지 않았다. 이 블록 역시 20회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블록은 검사 블록으로 앞의 두 블록에서 사용된 네 개의 범주가 함께 나왔고 앞선 블록들과 마찬가지로 각 범주에 속하는 단어 또는 사진이 나왔을 경우 키보드의 키를 눌러 범주를 분류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화면의 왼쪽 위에 백인의 얼굴 범주 또는 ‘흑인이 좋아하는’ 범주가, 오른쪽 위에 흑인의 얼굴 범주 또는 ‘흑인이 싫어하는’ 범주가 제시되는 경우(그림 1), 흑인 사진에는 ‘I’키를, 백인 사진에는 ‘E’키를, ‘기쁨’, ‘고뇌’ 등의 단어에는 참가자가 생각하기에 흑인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된다면 ‘E’키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된다면 ‘I’키를 누르도록 하였고 이 블록은 20회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블록 역시 검사 블록이었고 세 번째 블록과 마찬가지로 시행 40회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블록은 이전과 반대의 조합으로 검사 블록을 수행하기에 앞서 표적 범주들을 반대로 분류하는 것을 연습하는 블록이었다. 이 블록은 첫 번째 블록과 같은 자극,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나 표적 범주들의 범주명의 위치가 바뀌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블록에서 왼쪽에 ‘흑인’, 오른쪽에 ‘백인’이 있었다면 다섯 번째 블록에서는 왼쪽에

‘백인’, 오른쪽에 ‘흑인’이 제시되었다. 이 블록 역시 첫 번째 블록과 같이 20회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블록은 검사 블록으로 세 번째 블록과 같은 자극과 방법으로 구성되었지만 (즉 표적 자극들과 특성 자극들이 번갈아 화면에 나타남) 표적 범주의 위치가 바뀌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블록에서 사용된 특성 범주와 표적 범주의 조합이 “백인 얼굴 또는 ‘흑인이 좋아하는’”, “흑인 얼굴 또는 ‘흑인이 싫어하는’”이었다면 “흑인 얼굴 또는 ‘흑인이 좋아하는’”, “백인 얼굴 또는 ‘흑인이 싫어하는’”으로 바뀌어 범주가 제시됐다. 이 블록 역시 세 번째 블록과 같이 20번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일곱 번째 블록은 여섯 번째 블록과 같은 시행을 하였고 40회의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제1블록과 제5블록, 제3블록과 제6블록, 제4블록과 제7블록은 표적 범주의 범주명들의 순서가 서로 뒤집힌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대응되었는데, 블록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이 블록들의 묶음(1, 3, 4와 5, 6, 7)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이 끝난 후 참가자는 성별, 연령, 국적 등의 질문에 답하였다.

IAT 점수 계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전반적으로 Greenwald, Nosek, & Banaji (2003)가 권고한 방법을 따랐다. 참가자 중 지나치게 빠른 반응(300ms 이하)이 전체 시행의 10%가 넘는 참가자(한 명)의 전체 자료, 그리고 반응 시간이 지나치게 느린(10000ms 이상) 시행의 자료(전체 자료의 0.04%)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응답 시간은 참가자의 반응 순발

력에서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해 Cohen의 $d(1977)$, 즉 효과의 크기 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하였다. 구체적으로, 흑인과 긍정 범주, 백인과 부정 범주를 각각 같은 방향으로 분류하는 블록(흑인 얼굴 또는 '나/흑인/백인이 좋아하는', 백인 얼굴 또는 '나/흑인/백인이 싫어하는'의 조합 블록)의 반응 시간 평균에서 백인과 긍정 범주, 흑인과 부정 범주를 각각 같은 방향으로 분류하는 블록(백인 얼굴 또는 '나/흑인/백인이 좋아하는', 흑인 얼굴 또는 '나/흑인/백인이 싫어하는'의 조합 블록)의 반응 시간 평균을 뺀 값을 두 블록의 합동분산(pooled variance)의 제곱근으로 나누었다. 각각 대응되는 블록끼리(즉, 블록 3과 블록 6, 블록 4와 블록 7) 위 방법으로 계산한 뒤 둘을 산술 평균한 값을 취했다. 이 값의 절대값 크기는 대상(흑인 대 백인)에 대한 긍정적인 암묵적인 연합을 말하며 양수는 백인에 대한, 음수는 흑인에 대한 긍정적인 암묵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결과 및 논의

각 조건에 따른 암묵적 연합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3(편견의 주제: 본인, 흑인, 또는 백인) X 2(블록 제시 순서) 이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편견의 주제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했다, $F(2, 162) = 28.93, p < .001, \eta^2 = .26$. Tukey의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흑인에 대한 편견은 흑인의 관점에서 IAT를 수행한 참가자들($M = -0.13, SD = 0.50$)보다 백인의 관점에서($M = 0.46, SD = 0.40$) IAT를 수행한 참가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1$. 이는 백인의 관점일 때보다 흑인의 관점으로 IAT를 수행할 경우 흑인에 대한 암묵적인 메타 태도가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였다. 참가자 본인의 관점으로 IAT를 수행한 참가자들의 흑인에 대한 편견은($M = 0.36, SD = 0.40$) 백인의 관점에서 IAT를 수행한 참가자들의 경우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p = .48$, 흑인의 관점에서 IAT를 수행한 참가자들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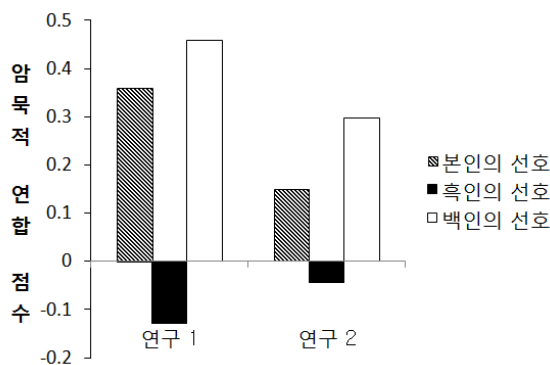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1과 연구 2의 암묵적 연합 점수

주. y축의 값이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흑인에 비해 백인에 대한 암묵적인 선호를 나타내고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백인에 비해 흑인에 대한 암묵적인 선호를 나타낸다.

는 흑인에 대한 높은 편견을 보였다, $p < .001$. 그림 2의 왼쪽 부분에 세 조건에서의 암 목적 연합이 제시되어 있다. 블록 제시 순서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1, 162) = 1.92, p = .17, \eta^2 = .01$, 편견의 주체와 블록 제시 순서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162) = 0.94, p = .40, \eta^2 = .01$.

다음으로 각 조건에서 편향이 유의미한지 알기 위해 각각의 IAT 점수를 0(중립적 태도)과 비교한 단일 표본 t 검정을 하였다. 본인 조건에서는 IAT 점수가 0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서, $t(52) = 6.57, p < .001$, 참가자들 본인은 흑인에 대해 암묵적인 편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백인 조건에서 시행한 IAT의 점수 역시 0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서 백인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자동화된 연합이 참가자들에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t(52) = 8.351, p < .001$. 참가자들이 흑인 조건으로 참여한 IAT의 점수는 본인 조건, 백인 조건과 달리 0보다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t(61) = -2.03, p = .047$,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들의 인종적 태도에 대한 암묵적 메타 태도는 흑인들에 더 우호적인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선호에 대해 판단할 때보다 흑인이나 백인과 같은 비교적 생소한 인종적 외집단의 선호에 대해 판단할 때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반응시간에 대한 조건간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각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는 유의했다, $F(2, 165) = 4.32, p = .02, \eta^2 =$

.05. 참가자들은 흑인이나 백인의 관점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각각 $M = 1021.65, SD = 304.51$, 그리고 $M = 1041.46, SD = 335.03$) 본인의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M = 895.76, SD = 223.89$) 과제에 대한 반응 시간이 더 빨랐다(Tukey의 HSD, 모든 $p < .05$). 이러한 결과는 선호에 대한 판단이 타인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두 번째 예측과 일치하였다.

연구 2

연구 1의 결과는 백인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흑인에 대한(백인에 비교한) 암묵적 메타 태도가 흑인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흑인에 대한 암묵적 메타 태도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이 암묵적 메타 태도들은 참가자 본인의 암묵적 태도(편견)와 어떻게 관련될까? 또 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흑인/백인들의 인종적 태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조금 다른 측정 방법으로 반복 검증하는 한편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 1과 달리 각 참가자가 세 가지 암묵적 연합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참가자내 설계를 채택하였다.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 보통의 흑인, 보통의 백인의 입장에서 흑/백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다. 연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참가자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IAT가 아닌 최근에 개발된 단축형 암묵

적 연합 검사(Brief IAT; Sriram & Greenwald, 2009)를 연구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변형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인종의 입장에서 내집단을 더 선호하는 암묵적 메타 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암묵적 연합들간의 상관에 대해서는 따로 사전에 가설을 세우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세 주체의 입장에서 흑/백인들에 대한 외현적 태도에 관한 질문에 답하도록 하여 세 가지의 암묵적 연합과 외현적 선호도들이 서로 어떤 상관을 나타내는지 탐색하였다.

방 법

참가자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219명(남: 97)의 학생들이 수업 과제의 일부로서 심리학과 실험실에서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0세였다.

기구 및 절차 연구 2의 절차는 연구 1에서의 절차와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연구 2의 절차는 Sriram과 Greenwald(2009)가 개발한 BIAT의 절차를 기초로 하였다. BIAT는 IAT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짧은 시간에 암묵적 연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과제이다. 표준 IAT에서는 검사 블록에서 네 개 범주(예: 흑인/백인, 좋음/나쁨)가 동시에 제시되지만 BIAT에서는 검사 블록에서 네 개 범주 중 오른쪽으로 분류해야 할 두 개 범주, 즉 ‘중심 범주(focal categories)’만 동시에 제시되며, 그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자극들은 모두 왼쪽으로 분류하게 된다. 특성 범주들의 범주명은 ‘내가/흑인이/백인이(즉 해당 조건에서의 주

체가) 좋아하는’만이 사용되었다. 둘째, 참가자 내 설계로 하여 각 참가자에게 세 가지 주체에 대응하는 세 가지 암묵적 연합을 모두 측정하였다. 셋째, 과제 자체가 IAT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본 과제에 앞서 BIAT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연습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즉 모든 참가자들은 연습 과제 하나(꽃/곤충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와 세 주체 각각에 해당하는 본 과제 세 개로 이루어진 총 네 개의 BIAT를 수행하였다.

연구 2의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참가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연구는 연구 1에서처럼 컴퓨터로 진행되었고 모든 안내는 컴퓨터 화면의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BIAT를 수행하기 전에 참가자가 가진 외현적인 편견,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가진 인종적 편견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한 문항씩 제시하였다(예: “미국의 보통의 흑인들은 다른 흑인들과 백인들에 대해 어떤 인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가자들은 1(‘흑인들을 매우 선호할 것이다’)부터 7(‘백인들을 매우 선호할 것이다’)까지의 7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이후의 과제들에 대한 지시문은 연구 1에서와 거의 동일하였다. 각 과제는 특성 범주의 학습 블록, 표적 범주의 학습 블록, 그리고 특성과 표적 범주의 조합으로 둘 간의 연합을 측정하는 검사 블록의 세 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블록들은 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각 블록이 시작하기 전 첫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에 제시되는 범주명들이 각각 무엇인지가 참가자에게 안내되었고 각 시행에서 참가자들은 화면 가운데에 제시되는 단어 또는 사진이 속한 범주에 따라서 키보드 버튼을 눌렀다.

표 2. 연구 2에서 사용된 BIAT의 절차

과제	블록	기능	왼쪽('E') 키	오른쪽('I') 키	시행 수	피드백 유무
연습 과제	1	특성 범주의 학습	'나쁜'	'좋은'	10	O
		표적 범주의 학습	곤충	꽃	4	O
	2	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나쁜' 또는 곤충	'좋은' 또는 꽃	12	O
검사 과제 (3회)	1	특성 범주의 학습	'~이/가 싫어하는'	'~이/가 좋아하는'	20	X
		표적 범주의 학습	흑인 얼굴	백인 얼굴	4	X
	2/3	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흑인 얼굴 또는 '~이/가 싫어하는'	백인 얼굴 또는 '~이/가 좋아하는'	28	X
		표적 범주의 학습	백인 얼굴	흑인 얼굴	4	X
	3/2	특성 범주 + 표적 범주 조합	백인 얼굴 또는 '~이/가 싫어하는'	흑인 얼굴 또는 '~이/가 좋아하는'	28	X

주. '블록' 열은 제시 순서를 나타냄. 블록의 제시 순서는 역균형화되었음. '~이/가'는 조건에 따라 '내가', '흑인이', '백인이'를 뜻함. 왼쪽 키에 대응하는 범주들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화면 오른쪽에는 블록에 따라 한 개 또는 두 개의 중심 범주가 표시되었으며 표적 범주는 하늘색, 특성 범주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중심 범주에 해당하는 자극이 나오면 'I'키를, 기타 모든 자극에 대해 'E'키를 눌렀다. 표 2에 각 블록의 기능,

왼쪽 키와 오른쪽 키에 대응되는 범주들, 시행 수, 참가자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졌는지 여부가 제시되어 있고 그림 3에 BIAT에서 사용된 화면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첫 과제는 꽃 또는 곤충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를 측정하는 과제로서, 참가자들이 B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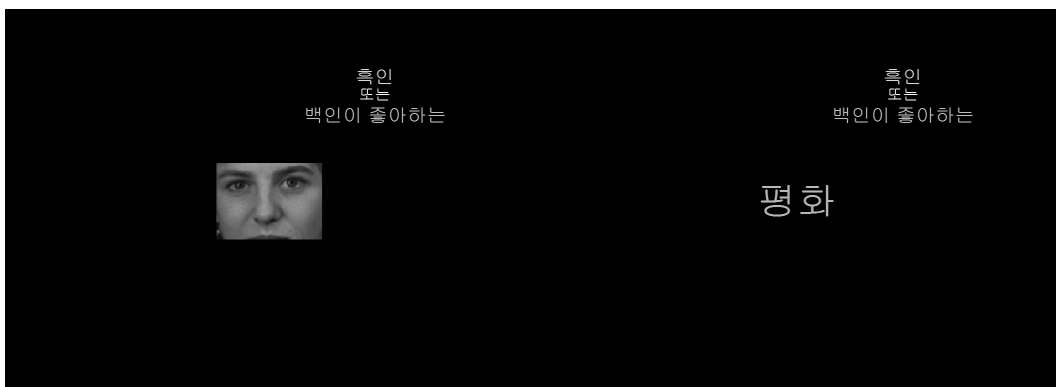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2에서 사용된 BIAT 화면의 예시.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첫 블록에서는 긍정적인 특성 범주(‘좋은’)가 화면의 오른쪽 위에 제시되었다. 화면의 중앙에는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단어(연구 1과 동일)가 제시되었는데 ‘좋은’ 범주에 속하는 단어(예: ‘즐거움’)가 나오면 ‘I’키를, 주어진 특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어(예: ‘상처’)가 나오면 ‘E’키를 누르게 하였다. 이 블록은 열 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연습 과제의 두 번째 블록은 열여섯 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는데 처음 네 개 시행에서는 표적 범주(예: ‘꽃’)가 화면의 오른쪽 위에 추가되었다. 첫 블록과 마찬가지로 표적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사진이 화면의 중앙에 제시되었는데 참가자는 곤충 사진이 나오면 ‘E’키를, 꽃 사진이 나오면 ‘I’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나머지 열두 개의 시행에서는 주어진 표적 범주와 특성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단어나 사진(예: 꽃 사진, 곤충 사진)이 화면 가운데에 제시되었는데 참가자는 주어진 범주에 속하는 단어나 사진이 나오면 ‘I’키를, 속하지 않는 단어, 사진이 나오면 ‘E’키를 눌렀다. 연습 과제에서는 만약 참가자가 틀린 답을 하였을 경우 빨간색 X로 피드백이 제시되었고 올바른 답을 누른 후에 다음 시행을 할 수 있었다.

연습 과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검사 과제 세 개를 시작하였는데, 세 개의 검사 과제는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고 세 검사 과제의 내용(즉 제시되는 자극들)은 모두 같았으나 제시되는 특성 범주만 바뀌어 사용되었다(‘흑인이 좋아하는’, ‘백인이 좋아하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검사 과제에서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틀렸을 때 나타나는 빨간색 X가 제

시되지 않았다(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달리 표적 범주의 분류를 연습하는 블록에서도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았다). 세 개의 검사 과제는 각각 세 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 블록에서는 특성 범주에 속하는 단어만 제시되었는데 화면의 오른쪽 위에 범주명(예: ‘흑인이 좋아하는’)이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화면 가운데에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단어가 해당되는 키를 눌러 최대한 빠르게 반응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암묵적 태도를 재는 표준 IAT에서 사용하는 특성 범주의 단어들이었으나 범주명만을 바꾸어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화면에 제시된 특성 범주명이 ‘흑인이 좋아하는’ 이었다면, ‘영광’이란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참가자가 생각하기에 흑인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되면 ‘I’키를, 흑인이 싫어할 것이라 생각되면 ‘E’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이 블록은 20회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블록에서는 범주명에 표적 범주(‘흑인’ 또는 ‘백인’)를 추가하였고 32회 시행 중 첫 네 번의 시행은 표적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사진들(연구 1의 사진과 동일)만이 제시되어 얼굴 사진들의 인종 범주화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제시된 중심 범주가 ‘흑인’일 경우, 참가자는 흑인 사진이 나타나면 ‘I’키를, 백인 사진이 나타나면 ‘E’키를 눌렀다. 나머지 28 시행에서는 사진뿐만 아니라 첫 블록에서 사용된 단어도 번갈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제시된 중심 범주가 흑인 얼굴 또는 ‘흑인이 좋아하는’이었을 때, 참가자는 흑인 사진이 나타나면 ‘I’키를, 백인 사진이 나타나면 ‘E’키를 눌렀고 ‘웃음’이란 단어가 나타났을 경우 흑인이 좋아할 것

이라 생각한다면 ‘I’키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E’키를 눌렀다. 이 블록에서 네 범주 모두의 자극들이 번갈아 제시된 28회 시행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세 번째 블록에서는 두 번째 블록의 중심 범주에서 표적 범주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블록에서 흑인 얼굴 또는 ‘백인이 좋아하는’이 중심 범주로 사용되었다면 백인 얼굴 또는 ‘백인이 좋아하는’으로, 백인 얼굴 또는 ‘백인이 좋아하는’이 사용되었다면 흑인 얼굴 또는 ‘백인이 좋아하는’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블록 역시 32회 시행 중 첫 네 번의 시행은 연습을 위해 표적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사진만 제시되었고 이후 28회의 시행은 표적 범주와 특성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사진과 단어가 제시되었다. 세 번째 블록 역시 28회 시행만이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록의 순서는 무선화되었다. 이후의 두 과제 역시 첫 번째 과제와 같은 방법으로, 다만 특성 범주의 범주명만을 교체하여 진행되었다. 과제가 모두 끝난 후 참가자는 성별, 연령, 국적 등의 질문에 답한 후 연구를 마쳤다.

IAT 점수 계산 각 주체에 따른 조건 중 반응 시간 300ms 이하로 답한 비율이 10%가 넘는 참가자는 각 주체(나, 흑인, 백인)에서 모두 다섯 명씩 있었으며 그 중 중복된 참가자가 있어 최종적으로 총 아홉 명의 자료(4.11%)를 제외했다. 반응 시간이 10000ms 이상인 시행은 2회(0.02% 미만) 있었고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의

반응 시간 역시 Cohen의 d (1977) 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변환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응되는 블록인 블록 2와 블록 3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각 주체에 따른 암묵적 편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AT 점수에 대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18) = 31.51, p < .001, \eta^2 = .13$. Bonferroni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 참가자들이 백인의 관점에서 BIAT를 수행했을 때 보인 흑인에 대한 편견($M = 0.30, SD = 0.49$)보다 흑인의 관점에서 BIAT를 수행했을 때 보인 흑인에 대한 편견($M = -0.04, SD = 0.44$)이 더 약했다, $p < .001$. 또한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본인의 관점에서 BIAT를 수행했을 때 ($M = 0.15, SD = 0.42$)에는 백인의 관점에서 수행했을 때보다는 더 약하게 나타났지만, $p = .002$, 흑인의 관점에서 수행했을 때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p < .001$. 이러한 결과는 연구 1과 대부분 일치하였지만 연구 1과 다르게 참가자가 생각하기에 백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메타 태도가 참가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편견보다 강했다. 하지만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백인의 관점에서 보인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메타 태도가 흑인의 관점에서 보인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메타 태도보다 더 강했고 이는 연구 가설과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각 조건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이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0(중립적 태도)과 비교하여 단일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은 0보다 유의미하게 커서, $t(209) = 5.11, p < .001$, 참가자들 본인은 흑인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인이 흑인에 대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암묵적 편견 역시 0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09) = 8.83, p < .001$, 참가자들의 백인에 대한 암묵적인 메타편견이 흑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가 흑인의 관점에서 수행한 BIAT의 점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흑인들에 좀 더 우호적으로 나타났다지만, 이 점수가 0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않았다, $t(209) = -2.03, p = .14$.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신의 선호에 대한 판단이 더 빠르기를 보기 위해 각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을 비교하였다. 반응시간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2, 418) = 6.27, p = .002, \eta^2 = .03$. 본인의 관점으로 시행한 과제에서

참가자의 반응 시간($M = 795.70, SD = 12.29$)은 흑인의 관점으로 시행한 과제에서의 반응 시간($M = 834.01, SD = 13.78$)보다 빨랐지만, $p = .002$, 백인의 관점으로 시행한 과제의 반응 시간($M = 808.12, SD = 12.51$)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77$. 다만 연구 1과 다르게 연구 2에서는 백인의 관점으로 시행한 과제에서의 반응 시간이 흑인의 관점으로 시행한 과제에서의 반응 시간보다 유의미에 근접한 수준으로 빨랐다, $p = .07$. 흑인을 주제로 했을 경우에 참가자의 반응시간이 가장 느리게 나온 이유는 참가자가 백인에 비해 흑인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 1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각 주체에 따른 흑인, 백인에 대한 암묵적인 연합과 외현적인 편견(또는 흑인 또는 백인이 가진 편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흑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본인 관점과 흑인 관점에서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

표 3. 관점에 따른 암묵/외현 편견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1	2	3	4	5
1. 본인의 흑인 암묵 편견					
2. 흑인의 흑인 암묵 편견	.15*				
3. 백인의 흑인 암묵 편견	.07	-.08			
4. 본인의 흑인 외현 편견	.09	.08	.02		
5. 흑인의 흑인 외현 편견	-.08	.16*	.01	.03	
6. 백인의 흑인 외현 편견	.08	.10	-.08	.09	-.25**

* $p < .05$, ** $p < .01$

며 나머지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외현적 편견 내에서의 상관은 백인 관점의 흑인에 대한 편견과 흑인 관점의 흑인에 대한 편견만이 부적인 관련을 보였다. 암묵적 편견과 외현적 편견 사이의 관계에서는 흑인의 흑인에 대한 외현적 편견, 암묵적 편견이 정적인 관련을 보였는데, 이는 흑인들의 외현적 인종 태도에 대한 신념과 일관된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의 암묵적인 편견과 외현적인 편견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종합논의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통하여 사람들은 개별적인 사회적 집단들의 집단간 태도에 대한 자동적인 연합(암묵적 메타 태도)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학부생들을 참가자로 하여, 그들 대부분이 직접적으로는 많은 접촉을 해 보지 않았을 흑인과 백인 집단에 대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을 인종적 편견에 관한 암묵적 메타 태도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집단들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Nosek et al., 2007), 구체적 사회 범주에 대한 암묵적 메타 태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대상 범주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두 가지의 암묵적 연합 측정 방법(IAT와 BIAT)을 변형,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과 일치했다. 즉, 대체로 참가자들은 백인의 입장에서 흑/백 인종에 대한 암묵적 연합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에 비해 흑인의 입장에서 수행했을 때 흑인들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양상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으로 오히려 백인보다 흑인에 더 긍정적이거나(연구 1) 중립적인 입장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연구 2) 연합을 보였다.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했을 때는 그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의 암묵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막연한 ‘다수’가 가지고 있을 태도에 대해 측정할 바 있지만(Yoshida et al., 2012)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집단들에 대해 그들의 집단간 태도를 암묵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연구가 최초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참가자가 자극들을 어느 입장에서 판단했는지에 관계 없이 판단의 내용은 사실 거의 같았음(즉 흑인/백인 얼굴의 분류, 단어의 긍정/부정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범주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즉 내가/흑인이/백인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측정되는 암묵적 연합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Mitchell, Nosek, & Banaji (2003)는 흑인 운동 선수들(백인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인종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직업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과 백인 정치인들(백인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인종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직업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을 사용한 IAT에서 제시되는 자극들을 인종으로 분류하느냐 직업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암묵적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Mitchell 등의 연구에서는 범주명이 달라질 때 범주화의 의미가 매우 달라졌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조건

간에 실질적으로 범주화의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연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암묵적 메타 태도가 실존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개념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조건에서 평균적인 반응 시간을 살펴본 결과 먼저 참가자들이 흑인이나 백인들의 선호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판단보다 절대적인 반응 시간이 일관되게 느리게 나타났는데, 조건별로 비교한 것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약간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자신의 선호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흑인의 선호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보다 빨랐던 것은 두 연구에서 모두 같았지만, 백인의 선호에 대한 판단의 속도는 연구 1에서는 흑인의 선호에 대한 판단에 가까웠던 반면 연구 2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 정도의 속도가 관찰되었고 흑인의 선호에 대한 판단에 비해서는 유의 수준에 근접한 정도로 더 빨랐다. 두 연구에서 백인 선호 판단의 속도에 관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원인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우나, 두 과제와 차이, 예를 들어 시행 수나 한꺼번에 제시된 범주의 수 등의 요인들이 판단의 주체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흑인의 선호에 대한 판단이 가장 느렸던 것은 참가자들이 흑인들을 자신들과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했거나 흑인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들의 선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참가자들 자신이 흑인들에 대해 느끼는 암묵적인 편향(노경란, 방희정, 2008)이 흑인들의 선호에 대한 판단에 간섭을 일으켜

서 반응이 느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흑인과 백인처럼 참가자의 선호나 친숙성에 있어서 이미 차이가 존재할 집단들이 아닌 중립적인 집단, 또는 비슷한 정도로 생소한 집단(예: 외계인과 같은 가상의 집단)들을 대상 집단으로 사용하여 사전의 경험이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암묵적 메타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 주체에 대한 참가자의 경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연구하기에 흥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연구 2에서는 또한 본인의 암묵적 태도와 여러 입장에서의 암묵적 메타 태도, 그리고 그것들에 대응되는 외현적 측정들 간의 상관관계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먼저 암묵적 측정들 중에서는 본인의 암묵적 편견과 흑인의 암묵적 메타 태도 사이에만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양의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가자들이 흑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에서의 판단에 기초했을 가능성(Ames, 2004)을 제기한다. 하지만 IAT 점수의 평균 비교에서는 흑인과 본인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만일 자신의 선호를 바탕으로 흑인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더라도 그것은 두 측정 간의 공변산(covariation)은 설명할 수 있지만 평균 수준에서의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왜 백인 입장에서의 측정과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외현적 측정끼리는 흑인 또는 백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인종적 편견이 서

로 음의 상관관을 보였는데, 이는 서로 자주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집단들이 서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흑인이 가지고 있을 인종간 태도에 대해서는 암묵적 측정과 외현적 측정 간에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Nosek, Smyth, Hansen 등(2007)에 따르면 같은 대상에 대한 외현적 측정과 암묵적 측정 간에는 흔히 상관관이 나타나므로 이 결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자신, 그리고 백인의 선호에 대한 외현적/암묵적 측정 간에는 왜 이에 대응하는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의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에 관련된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못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상관 관계를 재확인하고 관련 조절 변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암묵적 메타 태도는 과연 암묵적인 측정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묵성(implicitness)’이라는 말의 의미를 규정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의 과제가 기초하고 있는 암묵적 연합 검사의 암묵성에 대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과제와 암묵적 연합 검사의 차이점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암묵성은 ‘자동성(automaticity)’이라는 말과 흔히 혼용되고 있는데, Bargh(1994)에 따르면 어떤 심리 과정이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되려면 의식할 수 없고(unaware), 의도하지 않은 것이며(unintentional), 통제할 수 없고(uncontrollable), 효율적이라는(efficient) 네 요소가 만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네 개의 특성들은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심리 과정은 자동적이거나(또는 암묵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거나(또는 외현적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자동성의 정도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암묵적 연합 검사 역시 개인이 의식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태도와 행동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Greenwald et al., 1998),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도 참가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3; Cvencek et al., 2010; Wallaert et al., 2010; Hu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연합 검사는 외현적인 태도와 상관관이 높지 않고(Nosek, 2005) 통제하기 힘든 행동을 예측하여(McConnell & Leibold, 2001; Hugenberg & Bodenhausen, 2003) 변별타당도와 기준타당도를 갖춘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는 암묵적 연합 검사를, 보다 직접적으로는 Olson과 Fazio(2004), 그리고 Yoshida 등(2012)의 방법을 차용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 또한 존재한다. 먼저 유사한 과제를 사용한 Olson과 Fazio(2004)의 개인화된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는 반응 시간이 평균 600-900ms 정도였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는 800-1000ms 정도로 반응 시간이 다소 느렸다. 또한 자극을 범주화하는 IAT 과제의 성격과 달리(그리고 개인화된 암묵적 연합 검사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Nosek & Hansen, 2008).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 암묵적 메타 태도의 ‘암묵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암묵적 메타 태도의 측정에 통제적인 과정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적인 반응을 의도적인 요소와 암묵적인 요소로 분리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인 Jacoby(1991)의 Process Dissociation Framework나 Conrey 등(2005)의 Quad Model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암묵적 메타 태도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즉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집단간 태도가 자동화되는 것은 어떤 적응적 기능을 가질까? Galinsky, Ku, & Wang(2005)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집단 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고,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그러한 지식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정한다고 한다. Cesario 등(2006)과 Kawakami 등(2012)도 고정관념이 점화되어 자동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Bargh, Chen, & Burrows, 1996) 단순히 인지적 표상이 점화되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고정관념의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타 집단 구성원들의 선호에 대한 표상이 자동화되어 암묵적 연합 과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본 논문의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그 집단 구성원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로 측정된 암묵적 메타 태도가 해당 집단 구성원들이 결부된 맥락에서 행동들(특히 자동적인 행동들; Dovidio, Kawakami, Johnson, Johnson, & Howard, 1997)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사회적 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암묵적 메타 태도의 기능을 더 자세히 탐색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암묵적 메타 태도의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는 본 연구의 초점이 아니므로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암묵적 메타 태도는 다른 종류의 암묵적인 표상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여러 번의 반복되는 노출이나 판단 등의 경험의 결과로 자동적인 연합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Smith & DeCoster, 2000).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야채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의 선호를 반복해서 접하거나 어린이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일을 겪었던 어른은 어린이들의 야채 선호에 대한 암묵적 메타 태도를 형성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선호에 대한 지식은 여러 경로로 습득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할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 이를테면 선호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들로부터 직접 습득한 것이 아니라 지레 짐작하거나, 자신의 선호를 투사하는(Epley et al., 2004) 경우 내용의 정확성과 관계 없이 그 정보 처리가 얼마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메타 태도가 암묵적인 표상으로 자동화될 수 있다. 특히 인종간 태도와 같이 메타 태도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가자 자신과의 지각된 유사성이나 사회 통념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지식을 투사할 수 있다(Ames, 2004). 즉 사회적인 통념이 참가자 본인의 암묵적 선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Yoshida et al., 2012), 반대로 참가자 본인의 암묵적 선호가 암묵적 메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반응 시간의 차이나 암묵적 측정간의 상관에서 암묵적 메타 태도와

참가자 본인의 암묵적 태도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으나, 결과가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상의 집단에 대해 암묵적 태도와 암묵적 메타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두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들을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흑인과 백인이라는 두 인종 집단은 모두 한국의 대학생 참가자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대상들이었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뚜렷한 인종적 선호를 보인 집단들이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참가자들이 더 많은 접촉 경험을 가져 본 집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의 판단은 흑인과 백인의 경우보다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흑인의 입장에서 암묵적 메타 태도를 켜 것이 백인의 경우보다 그 내집단 선호의 크기가 훨씬 작게 나온 것은 참가자들이 흑인들에 대해 가지는 암묵적인 편견이 '흑인으로서' 나타낸 암묵적 메타 태도와 상쇄되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태도, 대상들과의 접촉 경험의 역사 등을 독립 변인으로 조작하여 그 효과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런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문제와 관련된 두 번째 한계점은 판단의 주체가 된 집단들(흑인과 백인)이 동시에 판단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각 입장에서 판단의 대상 중 하나는 내집단, 다른 하나

는 외집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측정에 복잡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측정들 간의 상관에서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는 참가자들이 각각의 주체의 입장에서 내집단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평가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판단의 주체가 되는 집단들과 대상이 되는 집단들을 서로 무관한 것들로 정해서(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미국인과 러시아인에 대해 갖는 태도에 대한 암묵적 연합을 측정)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경우에도 암묵적 메타 태도가 관찰된다면 암묵적 메타 태도가 유효한 개념이라는 우리들의 주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집단의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아닌 특정 개인의 입장에서 암묵적 메타 태도가 존재할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 사람이 다른 개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선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됨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표상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자동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 간의 친밀도, 권력 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갖는 암묵적 메타 태도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묵적 메타 태도는 사회적 범주에 대한 선호에만 그 대상이 한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 등에 대한 암묵적 메타 태도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로 매우 다른 입장에 있는 여러 집단의 대표들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할 때 각 집단의 대표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가 충분히 자동화되었다면, 실시간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입장들 사이에서 전환을 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임상적인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사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자동화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Schlenker & Leary, 1982).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암묵적 메타 태도의 측정법으로 그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이 암묵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사회공포증의 진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간 태도가 자동화되어 암묵적인 선호의 형태로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Galinsky 등, 2005; Cesario 등, 2006; Lun 등, 2008; Yoshida 등, 2012)의 연장선상에서 타인들에 대한 자동화된 지식은 그들이 지닐 태도도 포함되며 암묵적 연합 검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런 지각된 태도의 표상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발견들을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들에서 암묵적 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면 현실 문제들의 해결에 암묵적 메타 태도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준모 (2001). 암묵적 및 명시적 심리과정 - 연구와 응용: 명시적/암묵적 태도이론과 측정방법.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2001(0), 48-62.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 대학생과 외국대 학생 간에 사회집단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인종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154-155.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외현 및 암묵적 편견에 미치는 통제적 영향: 성 편견과 지역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5-186.
- 이훈구, 홍영오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mes, D. R. (2004). Inside the mind reader's tool kit: Projection and stereotyping in mental state in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340-353. doi:10.1037/0022-3514.87.3.340
- Bargh, J. A. (1994). The four horsemen of automaticity: Awareness, intention, efficiency, and control in social cognition. In Wyer Jr., R. S. & Srull, T. K.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2nd ed., Vols. 1-2, pp.1-40).

-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argh, J. A., & Chartrand, T. L. (1999). The unbearable automaticity of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4(7), 462-479. doi:10.1037/0003-066X.54.7.462
-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244. doi:10.1037//0022-3514.71.2.230
- Cesario, J., Plaks, J. E., & Higgins, E. T. (2006). Automatic social behavior as motivated preparation to intera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893-910. doi:10.1037/0022-3514.90.6.893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ev. ed). New York: Academic Press.
- Conroy, F. R., Sherman, J. W., Gawronski, B., Hugenberg, K., & Groom, C. J. (2005). Separating multiple processes in implicit social cognition: The quad model of implicit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469-487. http://doi.org/10.1037/0022-3514.89.4.469
- Correll, J., Park, B., Judd, C. M., & Wittenbrink, B. (2002). The police officer's dilemma: Using ethnicity to disambiguate potentially threatening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14-1329. doi:10.1037//0022-3514.83.6.1314
- Cvencek, D., Greenwald, A. G., Brown, A. S., Gray, N. S., & Snowden, R. J. (2010). Faking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s statistically detectable and partly correctabl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302-314. http://doi.org/10.1080/01973533.2010.519236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doi:10.1037/0022-3514.56.1.5
- Dovidio, J. F., Kawakami, K., Johnson, C., Johnson, B., & Howard, A. (1997). On the nature of prejudice: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5), 510-540. doi:10.1006/jesp.1997.1331
- Epley, N., Keysar, B., Van Boven, L., & Gilovich, T. (2004). Perspective taking as egocentric anchoring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327-339. http://doi.org/10.1037/0022-3514.87.3.327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229-238. doi:10.1037/0022-3514.50.2.229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S. L. Gaertner (Ed.),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61-89).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Galinsky, A. D., Ku, G., & Wang, C. S. (2005).

- Perspective-Taking and Self-Other Overlap: Fostering Social Bonds and Facilitating Social Coordin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8(2), 109-124. doi:10.1177/1368430205051060
- Graf, P., & Masson, M. E. J. (Eds.). (1993). *Implicit memory: New directions in cognition, development, and neuropsychology*.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Greenwald, A. G. (2012). Studies showing uses of the IAT with “real-world” subject populations. Retrieved from [http:// faculty.washington.edu/agg/pdf/Real-world_samples.pdf](http://faculty.washington.edu/agg/pdf/Real-world_samples.pdf)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4-27. doi:10.1037/0033-295X.102.1.4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doi:10.1037//0022-3514.74.6.1464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doi:10.1037/0022-3514.85.2.197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doi:10.1037/a0015575
- Hofmann, W., Gawronski, B., Gschwendner, T., Le, H., & Schmitt, M. (2005).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explicit self-report meas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0), 1369-1385. doi: 10.1177/0146167205275613
- Hugenberg, K., & Bodenhausen, G. V. (2003). Facing prejudice: Implicit prejudice and the perception of facial threat. *Psychological Science*, 14(6), 640-643.
- Jacoby, L. L. (1991). A process dissociation framework: Separating automatic from intentional uses of memor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0(5), 513-541.
- Jones, E. E., & Sigall, H. (1971). The bogus pipeline: A new paradigm for measuring affect and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76(5), 349-364. doi:10.1037/h0031617
- Karpinski, A., & Hilton, J. L. (2001). Attitudes and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774-788. doi:10.1037//0022-3514.81.5.774
- Kawakami, K., Phills, C. E., Greenwald, A. G., Simard, D., Pontiero, J., Brnjas, A., ... Dovidio, J. F. (2012). In perfect harmony: Synchronizing the self to activated social categ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3), 562-575. doi:10.1037/a0025970
- Kim, D. -Y. (2003). Voluntary controllability of

-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1), 83. <http://doi.org/10.2307/3090143>
- Lane, K. A., Banaji, M. R., Nosek, B. A., & Greenwald, A. G. (2007).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V. What we know (so far) about the method. In B. Wittenbrink & N. Schwarz (Eds.), *Implicit measures of attitudes* (pp.59-102).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Lun, J., Sinclair, S., Whitchurch, E. R., & Glenn, C. (2007). (Why) do I think what you think? Epistemic social tuning and implicit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6), 957-972. doi:10.1037/0022-3514.93.6.957
- McConnell, A. R., & Leibold, J. M. (2001). Relations amo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discriminatory behavior, and explicit measures of racial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5), 435-442. <http://doi.org/10.1006/jesp.2000.1470>
- Mitchell, J. P., Nosek, B. A., & Banaji, M. R. (2003). Contextual variations in implicit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2(3), 455-469. doi:10.1037/0096-3445.132.3.455
- Nock, M. K., Park, J. M., Finn, C. T., Deliberto, T. L., Dour, H. J., & Banaji, M. R. (2010). Measuring the suicidal mind: Implicit cognition predicts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4), 511-517. doi:10.1177/0956797610364762
- Nosek, B. A. (2005).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4(4), 565-584. doi:10.1037/0096-3445.134.4.565
- Nosek, B. A., & Hansen, J. J. (2008). Personaliz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ncreases explicit evaluation of target concep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4(4), 226-236.
- Nosek, B. A., Hawkins, C. B., & Frazier, R. S. (2011). Implicit social cognition: From measures to mechanism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5(4), 152-159. doi:10.1016/j.tics.2011.01.005
- Nosek, B. A., Smyth, F. L., Hansen, J. J., Devos, T., Lindner, N. M., Ranganath, K. A., ... Banaji, M. R. (2007). Pervasiveness and correlates of implicit attitudes and stereotyp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1), 36-88. doi:10.1080/10463280701489053
- Olson, M. A., & Fazio, R. H. (2004). Reducing the influence of extrapersonal associations 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Personalizing the I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653-667. doi:10.1037/0022-3514.86.5.653
- Olson, M. A., & Fazio, R. H. (2006). Reducing automatically activated racial prejudice through implicit evaluative condi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 421-433. doi:10.1177/0146167205284004
- Payne, B. K., & Gawronski, B. (2010). A history

-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Where is it coming from? Where is it now? Where is it going? In B. Gawronski & B. K. Payne (Eds.), *Handbook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Measurement, theory, and applications* (pp.1-15).
- Ranganath, K. A., & Nosek, B. A. (2008). Implicit attitude generalization occurs immediately; explicit attitude generalization takes time. *Psychological Science*, 19(3), 249-254. doi:10.1111/j.1467-9280.2008.02076.x
- Reingold, E. M., & Ray, C. A. (2006). Implicit cognition. In L. Nadel (Ed.), *Encyclopedia of Cognitive Science*. Chichester: John Wiley & Sons, Ltd. Retrieved from doi:10.1002/0470018860.s00178
- Schacter, D. L. (1987). Implicit memory: History and current statu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3(3), 501-518. doi:10.1037/0278-7393.13.3.501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doi:10.1037/0033-2909.92.3.641
- Schneider, W., & Shiffrin, R. M. (1977). Controlled and automatic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 Detection, search, and attention. *Psychological Review*, 84(1), 1-66. doi:10.1037/0033-295X.84.1.1
- Schuman, H. (Ed.). (1997). *Racial attitudes in America: Trends and interpretations*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man, H., Steeh, C., Bobo, L., & Krysan, M. (1985). *Racial attitudes in America: Trends and interpretations*.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h, E. R., & DeCoster, J. (2000). Dual-process models in social and cognitive psychology: Conceptual integration and links to underlying memory syste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08-131. doi:10.1207/S15327957PSPR0402_01
- Sriram, N., & Greenwald, A. G. (2009). The Brief Implicit Association Test. *Experimental Psychology (formerly Zeitschrift Für Experimentelle Psychologie)*, 56(4), 283-294. doi:10.1027/1618-3169.56.4.283
- Valiente, C., Cantero, D., Vázquez, C., Sanchez, Á., Provencio, M., & Espinosa, R. (2011).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discrepancies in paranoia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3), 691-699. doi:10.1037/a0022856
- Wallaert, M., Ward, A., & Mann, T. (2010). Explicit control of implicit responses: Simple directives can alter IAT performance. *Social Psychology*, 41(3), 152-157. http://doi.org/10.1027/1864-9335/a000022
- Wegner, D. M., & Vallacher, R. R. (1977). *Implicit psychology: An introduction to social cogn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oshida, E., Peach, J. M., Zanna, M. P., & Spencer, S. J. (2012). Not all automatic associations are created equal: How implicit normative evaluations are distinct from

implicit attitudes and uniquely predict meaningfu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3), 694-706. doi:10.1016/j.jesp.2011.09.013

1 차원고접수 : 2015. 06. 01

수정원고접수 : 2015. 07. 16

최종게재결정 : 2015. 07. 24

Measuring Implicit Associations from Perspectives of Various Social Groups

Hyangsu Lee

Hyeonjeong Kim

Yeongock Kim

Sang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e examined whether there exist implicit associations of preferences from perspectives of nonself people toward various social categories (“implicit meta-attitude”). Using Korean undergraduate participants we measured implicit associations about the attitudes that members of specific outgroups (Black or White racial groups) are expected to have towards their ingroup or an outgroup and compared these measures with each other. To measure implicit associations, we used a modified Implicit Association Test in Study 1, and a modified Brief Implicit Association Test in Study 2. In Study 1, we measured the implicit associations that participants themselves have, or a typical Black or White person would have, toward Black or White racial groups. In Study 2 we measured all these three kinds of associations from same participants as well as their explicit counterparts. Supporting our prediction, implicit associ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a Black or a White person were comparatively more favorable to the respective ingroup; the association measured from the self’s perspective fell between these two. Relationships with explicit attitudes did not show a consistent pattern. We demonstrated that implicit associations from perspectives of social categories one does not belong to can be mentally represented and measured.

Key words : implicit association, automatic processes, intergroup bias, prejudice